

사외칼럼

[세상사는 이야기] 오지않는 후배

입력 : 2025-01-10 17:28:04



작년에 나는 '매경춘추'를 몇 차례 써보기는 했지만, 당분간 '세상사는 이야기'를 쓴다니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된다. 작년 가을에 있었던 나이 차이로 비롯된 작은 해프닝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57세가 된 나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이고 대한치과보철학회 차기회장이다. 작년 가을 치과보철학회 학술대회로 주말 새벽 대구에 내려가 오후 4시쯤 근처 호텔에 먼저 체크인을 했다. 프런트에서 키를 받는데 보통 2인1실로 방을 배정해주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방을 쓰는지 물었다. 다른 치과대학 교수님의 이름을 얘기해주었는데 나보다는 꽤 젊은 편인, 학회에서 이사로 일하는 유쾌하고 유능한 분이였다. 학회 사무실에서 보통은 같은 연배로 방을 사전에 배정하는데 이번은 약간 특이하다고 생각했다. 방에 먼저 들어가 짐을 풀고 쉬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들어왔다. 나와 같은 방을 쓰는지 물렸나 보다. 나를 보고 당황하는 모습이 지금도 떠오른다. 손에 짐가방을 들고 어쩔 줄 몰라 하기에 편하게 쉬라고 얘기를 했다. 짐을 풀고 서로 옆 침대에서 "언제 왔냐?" "요새 잘 지내냐?" 정도의 담소로 시간을 보냈다. 1시간쯤 있다가 저녁 행사를 위해 호텔방을 같이 나왔다.

나는 요사이 음주를 잘 못해서 방에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방은 비어 있고 그는 아직 없다. '아직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나 보다.' 먼저 잠자리에 들었으나 계속 깬는데 새벽 1시였다. '보통은 12시에는 돌아오는데, 내일 학술대회는 어찌하려고 그러나.' 자다가 다시 깨니 2시였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3시에 다시 깨고 4시에 깨서야 알았다. '오지 않겠구나.' 아침에 일어나 그의 침

대를 보니 어제 있었던 짐이 없었다. 아침에 찾아 물어보니 마침 다른 방에 자리가 비어서 어제 저녁 행사할 때 짐을 옮겼다고 한다. 편하게 주무시라고. 내가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그동안 몰랐었나 보다.

그의 배려가 고맙다! 나는 이걸 좋아해야 하나, 아니면 마음에 상처를 받아야 하나. 그동안의 행동을 돌아보게 된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사적으로 얘기를 많이 나누어보지는 않았다. 나를 특별히 피하게 할 만한 일도 없는 것 같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하니 내가 그 교수 시절에 지금의 나 정도의 선배 교수를 호텔방에서 만났다면 나도 어떡해서든 나왔을 것 같다. 선배가 진짜로 친절했더라도 나도 많이 불편했을 것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과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나라가 조금 더 심할까. 다른 나라는 보통 방을 같이 안 쓴다고 하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닐 것 같다.

요새는 다른 연배와 편하게 있는 것이 더 힘들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듣는다. 그러나 나이 차이가 다섯 살, 열 살 정도 나는데도 같은 방·공간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당장 내게도 열 손가락보다는 넘게 있는 것 같다. 그 선배가 쪽 편하게 해주었고, 오랫동안 얘기도 나누었던 경우.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쌓인 세월과 인연으로 서로가 편하게 될 수 있다. 단지 나이 차이로 보고 지나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후배들에게 자주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은 해보고, 피했던 선배님들과 같이하는 기회를 조금씩은 만들어보고자 한다.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돌아오지 않는 후배를 안 만들거나 적게 만들 수 있을까. 불가능할 수도 있고 도리어 나는 덕분에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올해는 보다 겸손하고, 말하기보다는 귀 기울여 잘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

[김성균 서울대 교수·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장]